

광양, 독일 벤치마킹 수소도시 조성사업 '박차'

LOCAL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관계자 6명 광양 방문 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등 협력 방안 논의

광양시는 최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관계자 6명이 광양을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 전역에 76개소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소로 수소 분야 R&D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수소에너지 연구기관이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일행은 시청 회의실에서 김기흥 부시장, 조현욱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문과 질의응답,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고분자전해질막 (PEM)

수전해' 방식 외에 '청록수소'를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독일의 현재 수소 관련 사업 진행 현황 등 수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연구소 방문은 또 국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퓨얼셀, 전남테크노파크 등 10여개 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해 수전해 방식, 도시가스 개질 방식 등 수소연료공급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시는 정부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에 따라 수소도시 단계를 넘어 향후 생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관계자 6명이 최근 광양시를 방문,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수소화도시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수소산업을 적극 활성화해 광양 경제를 일으키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며 "프라운

호퍼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장성, 도시브랜드 캐릭터 확정 '성장·장성'...화합·변화 상징

장성군이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을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성장장성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 디자인안을 확정·발표하고 공식 활용한다.

확정된 '성장이와 장성이' 캐릭터는 2개월간 진행된 1차 공모전과 2차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에서 215개 디자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날개와 땅도는 장성의 변화와 성장을 표현하며 활기차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며, 손을 맞잡는 모습은 협력과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새로운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는 화합과 변화,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장성의 희망찬 내일을 상징한다"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김성 장흥군수,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이사 선임 제3차 이사회서 선출...내년 3월 12일까지 임기

장흥군은 김성 군수(사진)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초자치단체 선임이사로 선출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김성 군수는 2026년 3월 12일까지 지방재정 정책 연구와 지방세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정책 연구와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3차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사



회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이사회 정수를 현행 12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온 김군수는 제6·7대 전남도위원과 민선 6기 장흥군수 등을 역임하며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성 군수는 "지방세 세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순천시 '글로벌 웹툰 아카데미' 열린다

5월 16일까지 PD 등 4명 연수 '순천을 글로벌 웹툰 성지로'

순천시가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한-불 글로벌 웹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까지 두 달간 '한-불 글로벌 웹툰 아카데미'를 개최, 지난해 '프랑스 앙굴렘 웹툰 아카데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비작가 3명, 웹툰PD 1명 등 총 4명(프랑스 3, 가봉 1)을 선발해 집중 연수시킨다.

지난해 12월 순천에 등지를 틈 웹툰 영커기업 케나즈(대표 이우재)가 웹툰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작가로 데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 프랑스유럽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연수가 순천에서 열리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순천시-한국 웹툰기업(케나즈)-프랑스 콘텐츠 기업(오노코리아)'이 글로벌 웹툰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을 후속 조치다.

이우재 케나즈 대표는 "세계 만화의 중심도시가 앙굴렘이라면,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이다. 문화강대국 프랑스에서 웹툰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온



노관규 순천시장과 케나즈·오노코리아 웹툰 기업 관계자, 프랑스·가봉 웹툰 작가들이 웹툰 창작 공간인 순천글로벌웹툰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것은 대단한 일이다"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웹툰에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글로벌 웹툰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오노코리아 이파스 대표는 "프랑스 앙굴렘 웹툰 아카데미의 역동성을 한국에서 특히 이곳 순천에서 이어가려는 것은 국제적으로 빛날 수 있는 일이다"며 "프랑스어권 신진 창작자들을 발굴하는 이번 아카데미를 열어준 순천시와 케나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웹툰을 배우고 싶어 하는 창작자들을 순천으로 불러 모아 순천을 글로벌 웹툰 성지로 만들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순천시는 정월박람회 이후 문화산업을 핵심 경제축으로 삼고, 웹툰과 애니메이션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순천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아카데미, 작품제작, 비즈니스 마켓 등)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구례, '군수와 함께하는 구들장 대화' 성료

구례군은 최근 8개 읍면 156개 마을로 찾아가서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구들장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들장 대화'에서는 김순호 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마을회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께 신년하례 세배를 올리고 마을 건의 사항 청취, 군정 제안 의견 수

렴 등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군은 '구들장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갖고 총 854건의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 부서장이 처리계획을 보고했다.

구례=전정제 기자 dong-eah@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